

#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대학\*, 대원대학교 응급구조과\*\*, 호서대학교 간호학과·기초과학연구소\*\*\*

Mi-Jeong Park(jeong7676@hanmail.net)\*, Young-Lim Ham(ylham@mail.daewon.ac.kr)\*\*,  
Doo-Nam Oh(doonoh@hoseo.edu)\*\*\*

###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 모색 및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일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남녀 신입생 325명을 편의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SPSS 17.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대 신입생이 지각한 의사결정역량의 정도는 61.77±7.70점, 대학생활적응은 60.97±8.94점, 대학생활만족도는 57.97±10.80점이었다. 여가활동유무는 대학생활적응( $t=9.174, p<.001$ ), 대학생활만족도( $t=8.126,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각된 학업성취는 각 그룹 간 대학생활적응( $F=18.673, p<.001$ ), 대학생활만족도( $F=26.000, p<.001$ )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문대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과 대학생활적응( $r=.159, p<.001$ ), 의사결정역량과 대학생활만족도( $r=.121, p<.05$ ),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도( $r=.543, p<.001$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재학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의사결정역량 | 대학생활적응 | 대학생활만족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s and to analyze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subjects were 325 freshme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to October, 2009, and analyzed with SPSS 17.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decision-making-competency of college freshmen was 61.77±7.70, adjusting to college life was 60.97±8.94, and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was 57.97±10.80. Relationships between adjusting to college life and decision-making-competency in college freshmen ( $r=.159, p<.001$ ), between decision-making-competency and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 $r=.121, p<.05$ ),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 $r=.543, p<.001$ )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ese results will be used for developing programs for the college freshmen in adjusting to college life and student dropout prevention.

■ keyword : | Decision-Making-Competency | Adaptation to College Life |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청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방황, 혼란을 겪으며 성인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과업에 집중해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대학 신입생들은 성인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결과와 책임이 따르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접하게 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2]. 다양한 환경적 혹은 상황적 변화는 대학 신입생에게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배가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개인의 적응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전문대 신입생의 경우, 특수한 대학환경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비교적 자신의 선호보다는 고교 성적에 의해 진학을 결정한 경우가 많아 미래에 대한 모호성, 좌절, 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 낮은 자기 확신 등으로 학교생활에 불만족스러워하며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3].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면서 중견기술인이라는 국가·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 만족도를 고려한 진로지도의 모색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4].

적응은 일상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5] 또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대처결과[6]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대학생활의 적응은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부딪히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올바른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서 성격적인 취약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이전까지 억압되었던 문제들이 표면화되어 악화된 경우가 많다[3]. 이러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업적 수행이 현저히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방치될 경우 악순환적으로 더욱 악화되어 만성화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7].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성장·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성취감과 협동심을 기르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사회 환경에 빠르고 조화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은 대학생에게 있어 대학생활적응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교육현장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8][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및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10].

대학생활 중에서도 특히 1학년은 대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4년제 대학에 비해 비교적 대학생활이 짧은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 1학년에서의 적응과 만족도는 전체 대학생활의 유지와 성공의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11].

전 생애 과정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의 결과는 그 개인의 사회인으로서의 적응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12].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하여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대학생활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올바른 의사결정역량이 요구된다. 올바른 의사결정은 대학생활을 계획적이고 즐겁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무기력증, 대인관계 문제, 학업성취 부진 등을 경험하게 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힘들게 하고 불만을 경험하게 한다[13]. 즉,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리는 능력은 개인적인 행복과 직업상의 성공 모두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역량은 조직의 유능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자 개인의 조직 문제해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내리는 의사결정은 개인 자신의 삶, 다른 사람들의 삶, 크게 보면 사회나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역량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5].

대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적응과 만족은 졸업 후 사회활동과도 관련되므로 사회적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역량과의 상관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 모색 및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 모색 및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전문대학 신입생들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3.1 의사결정역량

의사결정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대안 중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이다[16]. 본 연구에서는 Miller와 Byrnes [12]가 개발한 Decision-Making-Competency Inventory (DMCI)를 박미정, 오두남, 함영림, 임승주와 임영미[17]가 번안하여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측정도구에 의한 점수를 의미한다.

### 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

는 여러 교육적 여건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 등을 자신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생 자신이 이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3].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8]가 개발하고 손유진[19]이 수정보완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3.3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란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자신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이다[20]. 본 연구에서는 김지현[21]이 개발한 대학생활만족도 측정도구에 의한 점수를 의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소재 D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들이다. 측정변수에 대한 학년, 전공별 특성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업계열, 간호보건계열, 사회실무계열, 자연과학계열 등의 1학년 남녀학생들을 각각 편의추출하여 설문지를 의뢰한 후 연구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error margin 5%, confidence level 90%, population size 20,000, response distribution 50%로 정하고 Sample size calculator[22]를 이용하였을 때 267명이 산출되므로, 267명 이상을 본 연구의 목표 대상자 수로 하였다.

### 3. 연구 도구

#### 3.1 의사결정역량

Miller와 Byrnes[12]이 개발하고 박미정 등[17]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DMC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어판 DMCI는 자기조절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역량에 관한 총 18문항으로 자기관찰 8문항, 자기판단 8문항, 자기확신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측정도구의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역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미정 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2이었다.

#### 3.2 대학생활적응

Baker와 Siryk[18]가 개발하고 손유진[19]이 수정 보완한 SAC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ACQ는 총 25문항으로 학문적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5문항, 정서적 적응 5문항, 신체적 적응 5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손유진[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4이었다.

#### 3.3 대학생활만족도

김지현[21]이 개발한 대학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건강 및 안전 욕구 3문항, 경제적 욕구 3문항, 사회적 욕구 3문항, 자아 존중의 욕구 3문항, 지적 욕구 3문항, 심미적 욕구 3문항, 자아실현의 욕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이다.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범위는 14-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현[21]의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5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9월 15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각 학과 교수의 허가와 협조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과를 방문하여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 자가보고식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 배부하여, 33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82.5%이었다.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5부를 제외한 32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표 1]과 학업관련 특성[표 2]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06세로, 성별은 남자 51.7%, 여자 48.3%, 종교 유무는 유 49.5%, 무 50.5%이었으며, 현 거주지는 집에서 통학하는 경우가 52.3%로 가장 많았다. 지각된 가정 경제 상태는 중과 하인 경우가 각 44.4%, 46.0%로 상

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각된 행복의 경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9.5%로 가장 많았다. 여가활동 유무는 유 52.9%, 무 47.1%이었다.

학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공업계열 31.8%와 간호보건계열 32.1%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출신 고등학교는 인문계 48.1%과 전문계 45.4%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진학경로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진학한 경우가 83.0%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타대학 졸업 후 진학한 경우도 2.8%가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는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으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결정한 경우도 7.4%에 이르렀다. 전공선택 동기는 호기심과 흥미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전망 및 자격증 취득을 동기로 한 경우도 각 33.5%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영향은 본인에 의해서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입시기관 관계자에 의한 경우도 3.4%로 나타났다. 등록금은 77.8%가 가족을 통해 조달받고 있었으며, 학자금 대출도 10.5%에 달하였다. 지각된 학습량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9.4%로 가장 많았으며, 지각된 학업성취는 중간 정도라 응답한 경우가 63.7%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5)

특성	구분	평균 또는 실수(%)
연령(M±SD)		20.06±10.13
성별	남	168(51.7)
	여	157(48.3)
종교	유	161(49.5)
	무	164(50.5)
학기중 거주지	집(통학)	170(52.3)
	기숙사	134(41.2)
	기타(자취 등)	21( 6.5)
지각된 가정경제*	상	31( 9.6)
	중	144(44.4)
	하	149(46.0)
지각된 행복*	매우 불행하다	14( 4.3)
	불행하다	34(10.5)
	그저 그렇다	128(39.5)
	행복하다	94(29.0)
	매우 행복하다	54(16.7)
여가활동	유	172(52.9)
	무	153(47.1)

\* 무응답 제외

표 2. 연구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 (N=325)

특성	구분	실수(%)
전공계열*	공업계열	102(31.8)
	간호보건계열	103(32.1)
	사회실무계열	64(19.9)
	자연과학계열	52(16.2)
출신고등학교*	인문계	156(48.1)
	전문계	147(45.4)
	기타(특성화, 체육 등)	21( 6.5)
대학진학경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	263(83.0)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	4( 1.3)
	타대학 재학 중	15( 4.7)
	타대학 졸업 후	9( 2.8)
	직장 재직 중	26( 8.2)
전공결정시기	고등학교 입학 전	20( 6.2)
	고등학교 1,2학년	53(16.3)
	고등학교 3학년	158(48.6)
	원서교부 기간, 수능이후	70(21.5)
	원서접수마감 이후	24(7.4)
전공선택동기	호기심과 흥미	102(31.4)
	적성	41(12.6)
	취업전망, 자격증 취득	109(33.5)
	성적	9( 2.8)
	부모님 또는 주위권유	48(14.8)
	기타	16( 4.9)
전공선택영향	본인	140(43.1)
	가족	98(30.2)
	친구, 선배	24( 7.4)
	고등학교 선생님	36(11.0)
	입시기관 관계자	11( 3.4)
	기타	16( 4.9)
	등록금 조달*	가족
장학금	14( 4.3)	
아르바이트	12( 3.7)	
학자금대출	34(10.5)	
기타	12( 3.7)	
지각된 학습량	너무 많다	39(12.0)
	많다	91(28.0)
	적절하다	128(39.4)
	부족하다	55(16.9)
	너무 부족하다	12( 3.7)
지각된 학업성취	상	36(11.1)
	중	207(63.7)
	하	82(25.2)

\* 무응답 제외

2.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

전문대 신입생이 지각한 의사결정역량의 정도는 점수가능 범위 20-100점 중 61.77점이었으며, 36-100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의사결정역량의 하위영역 중 자기판단이 57.7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자기확신이 65.34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점수 가능 범위 20-100점 중 60.97점이었으며, 28-93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하위영역 중 신체적 적응과 정서적 적응이 59.20점, 59.95점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적응이 62.18점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 정도는 점수 가능 범위 14-100점 중 57.97점이었으며, 26-88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욕구가 49.2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의 욕구와 심미적 욕구도 각 50.98점, 53.37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적욕구의 경우 63.09점으로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표 3].

표 3.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N=325)

측정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의사결정역량	61.77± 7.70	36-100
자기관찰	64.75± 9.82	38-100
자기판단	57.73±11.54	23-100
자기확신	65.34±13.39	20-100
대학생활적응	60.97± 8.94	28- 93
학문적 적응	60.64±12.51	28-100
사회적 적응	62.18±11.49	28- 96
정서적 적응	59.95±14.31	20-100
신체적 적응	59.20±11.73	20- 92
대학에 대한 애착	62.85±13.27	20-100
대학생활만족도	57.97±10.80	26- 88
건강 및 안전 욕구	60.95±13.12	20-100
경제적 욕구	49.23±16.24	20- 87
사회적 욕구	62.85±14.99	20-100
자아존중의 욕구	50.98±15.42	20-100
지적 욕구	63.09±16.10	20-100
심미적 욕구	53.37±16.28	20-100
자아실현의 욕구	57.17±14.95	20-1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역량( $t=.194$ ,  $p=.660$ )과 달리 대학생활적응( $t=6.468$ ,  $p=.011$ )과 대학생활만족도( $t=28.213$ ,  $p<.001$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 그룹의 경우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지각된 가정경제에 따른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각된 행복의 경우 의사결정역량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F=.810$ ,  $p=.543$ ), 대학생활적응( $F=5.507$ ,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 $F=10.330$ ,  $p<.001$ )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행복하다고 지각할수록 점수가 높았다. 여가활동유무의 경우에도,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학생활적응( $t=9.174$ ,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 $t=8.126$ ,  $p<.001$ )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각 계열 그룹 간 의사결정역량( $F=.567$ ,  $p=.637$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생활적응( $F=4.062$ ,  $p=.007$ )과 대학생활만족도( $F=4.536$ ,  $p=.004$ )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에서 공업계열 그룹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출신고등학교에 따라서는 대학생활적응( $F=.167$ ,  $p=.846$ )과 대학생활만족도( $F=2.293$ ,  $p=.103$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결정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3.087$ ,  $p=.047$ ).

전공결정시기 및 등록금 조달에 따른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공선택동기에 따라서는 대학생활적응( $F=6.301$ ,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 $F=7.488$ ,  $p<.001$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호기심과 흥미, 적성, 취업전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공을 선택한 그룹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공선택영향의 경우 의사결정역량( $F=1.927$ ,  $p=.090$ )과 대학생활적응( $F=1.164$ ,  $p=.327$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학생활만족도( $F=2.769$ ,  $p=.018$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지각된 학습량은 대학생활적응( $F=5.097,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 $F=5.715, p<.001$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습량이 적절하다고 지각한 그룹에서 점수가 높았다. 또한 지각된 학업성취의 경우에서도 대학생활적응( $F=18.673,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 $F=26.000, p<.001$ )에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학업성취 지각이 높은 그룹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 4.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전문대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은 의사결정역량의 하위영역인 자기관찰( $r=.709, p<.001$ ), 자기판단( $r=.752, p<.001$ ), 자기확신( $r=.447, p<.001$ )과, 대학생활적응( $r=.159, p<.001$ ) 및 그 하위영역인 학문적 적응( $r=.171, p<.001$ ), 정서적 적응( $r=.198, p<.001$ ), 대학에 대한 애착( $r=.167,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 $r=.121, p<.05$ ) 및 그 하위영역인 사회적 욕구( $r=.185, p<.001$ ), 자아실현의 욕구( $r=.112, p<.05$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의사결정역량( $r=.159, p<.001$ ) 및 그 하위영역인 자기판단( $r=.296, p<.001$ )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문적 적응( $r=.735, p<.001$ ), 사회적 적응( $r=.608, p<.001$ ), 정서적 적응( $r=.781, p<.001$ ), 신체적 적응( $r=.644, p<.001$ ), 대학생활에 대한 애착( $r=.744,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 $r=.543, p<.001$ ) 및 그 하위영역인 건강 및 안전욕구( $r=.462, p<.001$ ), 경제적 욕구( $r=.271, p<.001$ ), 사회적 욕구( $r=.375, p<.001$ ), 자아존중의 욕구( $r=.460, p<.001$ ), 지적 욕구( $r=.471, p<.001$ ), 심미적 욕구( $r=.188, p<.001$ ), 자아실현의 욕구( $r=.432,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의사결정역량( $r=.121, p<.05$ ) 및 그 하위영역인 자기관찰( $r=.151, p<.001$ ), 자기확신( $r=.131, p<.05$ )과, 대학생활적응( $r=.543, p<.001$ ) 및 그 하위영역인 학문적 적응( $r=.461, p<.001$ ), 사회적 적응( $r=.446, p<.001$ ), 정서적 적응( $r=.256, p<.001$ ), 신체적 적응( $r=.282, p<.001$ ), 대학생활에 대한 애착( $r=.498, p<.001$ )과, 대학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인 건강 및 안전 욕구( $r=.636, p<.001$ ), 경제적 욕구( $r=.503, p<.001$ ), 사

회적 욕구( $r=.606, p<.001$ ), 자아존중의 욕구( $r=.775, p<.001$ ), 지적욕구( $r=.760, p<.001$ ), 심미적 욕구( $r=.743, p<.001$ ), 자아실현의 욕구( $r=.853,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5].

#### IV. 논의

본 연구는 전문대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전략 모색 및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중 입학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6.2%)이나 고등학교 1, 2학년(16.3%)이 아닌 고등학교 3학년(48.6%)이나 원서교부 기간(21.5%)에 전공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공선택 동기에 있어서는 취업전망 또는 자격증 취득(33.5%)을 고려하며, 본인 스스로의 결정(43.1%)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전문대학 신입생들이 직업에 대한 정보나 졸업 후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취업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함을, 다시 말하면, 전공에 대한 준비나 자신감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 및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전문대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점수는 점수 가능 범위 20-100점 중 평균 61.77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순 없지만, 이러한 점수는 신입생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계획, 점검, 평가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점수 또한 점수 가능 범위 20-100점 중 평균 60.97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조사한 김병찬[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 (N=325)

특성	구분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M±SD	F/t(p)	M±SD	F/t(p)	M±SD	F/t(p)
성별	남	61.96± 8.38	.194(.660)	62.17± 9.48	6.468(.011)*	60.88±10.45	28.213(<.001)**
	여	61.58± 6.91		59.64± 8.14		54.69±10.27	
지각된 가정경제	상	58.78± 7.02	2.597(.076)	58.67± 4.42	3.034(.050)	56.12±10.31	2.414(.091)
	중	62.01± 8.29		62.29± 8.91		59.46±10.99	
	하	62.15± 7.16		60.28± 9.43		56.99±10.54	
지각된 행복	매우 불행하다	61.27± 6.92	.810(.543)	51.71± 1.44	5.507(<.001)**	48.83±15.20	10.330(<.001)**
	불행하다	63.24± 7.08		55.18± 6.94		54.36±11.27	
	그저 그렇다	61.05± 7.64		60.55± 7.89		57.08± 9.53	
	행복하다	62.62± 7.14		64.01± 9.44		59.99±10.20	
	매우 행복하다	61.20± 9.38		63.37± 7.42		91.91±10.70	
여가 활동유무	유	61.09± 7.74	1.502(.224)	62.82± 8.87	9.174(<.001)**	60.33±10.22	8.126(<.001)**
	무	62.58± 7.64		58.86± 8.61		55.24±10.89	
전공계열	공업계열	62.33± 8.90	.567(.637)	62.45± 8.83	4.062(.007)*	60.88± 9.78	4.536(.004)*
	간호보건계열	61.74± 6.01		60.50± 8.82		56.58±10.62	
	사회실무계열	60.75± 8.11		62.35± 9.01		57.89±10.05	
	자연과학계열	62.14± 8.00		57.27± 8.55		55.42±12.82	
출신 고등학교	인문계	61.19± 6.88	3.087(.047)*	62.07± 8.57	.167(.846)	57.61±10.33	2.293(.103)
	전문계	62.63± 8.22		59.90± 9.37		58.33±11.31	
	기타(특성화, 체육 등)	58.67± 6.72		60.11± 8.26		57.66±11.13	
전공 결정시기	고등학교 입학 전	63.28± 8.54	.681(.638)	58.88± 7.74	1.221(.299)	58.68±10.57	1.827(.107)
	고등학교 1,2학년	60.80± 7.69		61.72± 6.70		59.06±11.29	
	고등학교 3학년	62.24± 8.14		60.85± 8.59		58.21±10.08	
	원서접수 기간, 수능이후	60.86± 6.83		62.68±10.30		58.07±11.65	
	원서접수마감 이후	62.51± 6.66		56.80±11.24		52.64±11.75	
전공 선택동기	호기심과 흥미	61.42± 8.38	.454(.810)	61.61± 7.01	6.301(<.001)**	60.15± 8.49	7.488(<.001)**
	적성	61.97± 9.10		62.54± 9.61		60.14±10.65	
	취업전망, 자격증 취득	61.75± 6.89		62.87± 9.34		58.56±10.69	
	성적	60.00± 9.80		56.40± 6.36		47.88± 6.86	
	부모님 또는 주위권유	63.07± 7.09		58.20± 8.11		55.38±12.63	
	기타	60.83± 5.51		50.80±10.39		48.41±12.55	
전공 선택영향	본인	61.27± 7.69	1.927(.090)	61.83± 8.83	1.164(.327)	58.10±10.21	2.769(.018)*
	가족	62.11± 7.21		60.74± 7.95		57.24± 9.80	
	친구, 선배	63.33± 7.11		60.37± 9.73		57.05±12.71	
	고등학교 선생님	63.64± 9.41		57.55± 8.26		59.30±12.61	
	입시기관 관계자	61.52± 7.92		57.38± 9.51		54.05± 9.39	
	기타	57.04± 5.66		66.24±13.00		62.97±14.88	
등록금 조달	가족	61.80± 7.87	.726(.575)	60.81± 9.02	.759(.553)	57.59±10.76	.802(.524)
	장학금	63.17± 7.70		59.71±12.49		57.53±15.73	
	아르바이트	60.30± 9.40		62.27± 8.89		60.99± 7.35	
	학자금대출	62.59± 6.36		60.78± 7.15		58.51±10.01	
	기타	58.89± 6.29		65.13± 7.60		62.31±9.70	
지각된 학습량	너무 많다	60.85± 7.89	.554(.697)	57.49± 8.61	5.097(.001)*	55.01±11.55	5.715(<.001)**
	많다	61.89± 7.50		58.52± 7.77		56.50±11.18	
	적절하다	62.41± 8.06		63.26± 9.34		61.12± 9.99	
	부족하다	60.97± 7.33		62.09± 8.78		56.65±10.00	
	너무 부족하다	60.71±6.85		61.33± 7.98		52.12± 9.80	
지각된 학업성취	상	61.73± 7.78	.551(.577)	66.96±10.73	18.673(<.001)**	64.62±11.22	26.000(<.001)**
	중	61.47± 7.72		61.94± 8.02		58.89± 9.91	
	하	62.53± 7.67		55.86± 7.81		52.73±10.64	

\*p<.05, \*\*p<.001



표 5.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관계 (N=3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1. 의사결정역량	-																
2. 자기관찰	.709**																
3. 자기판단	.752**	.120*															
4. 자기확신	.447**	.315**	.085														
5. 대학생활적응	.159**	.034	.296**	.088													
6. 학문적 적응	.171**	.068	.350**	.118*	.735**												
7. 사회적 적응	.108	.174**	.034	.155**	.608**	.400**											
8. 정서적 적응	.198**	.067	.255**	.026	.781**	.369**	.283**										
9. 신체적 적응	.080	.036	.143*	.009	.644**	.287**	.143**	.607**									
10. 대학에 대한 애착	.167**	.034	.228**	.037	.747**	.560**	.371**	.444**	.237**								
11. 대학생활만족도	.121*	.151**	.016	.131*	.543**	.461**	.446**	.256**	.282**	.498**							
12. 건강 및 안전 욕구	.056	.097	.012	.041	.462**	.338**	.393**	.226**	.368**	.328**	.636**						
13. 경제적 욕구	.039	.026	.043	.062	.271**	.109*	.096	.267**	.282**	.195**	.503**	.322**					
14. 사회적 욕구	.185**	.288**	.020	.183**	.375**	.295**	.565**	.095	.099	.313**	.606**	.326**	.082				
15. 자아존중의 욕구	.061	.070	.018	.149**	.460**	.428**	.421**	.207**	.106	.469**	.775**	.420**	.220**	.505**			
16. 지적 욕구	.059	.158**	.119*	.222**	.471**	.514**	.332**	.199**	.193**	.443**	.760**	.392**	.164**	.464**	.586**		
17. 심미적 욕구	.095	.014	.124*	.002	.188**	.177**	.124*	.073	.112*	.202**	.743**	.328**	.371**	.225**	.464**	.464**	
18. 자아실현의 욕구	.112*	.072	.084	.076	.432**	.382**	.294**	.183**	.237**	.455**	.853**	.448**	.287**	.407**	.604**	.613	.698**

\*p<.05, \*\*p<.001

이를 통해,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의 모색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의 점수는 점수 가능 범위 14-100점 중 평균 57.9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일반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현[21]의 연구 결과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3][21] 지적되었듯이, 낮은 대학생활적응도와 관련된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적응을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31.8%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남학생인 공

업계열에서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점수가 다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결과와 상관되는 것으로,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점수 차이가 성별에 의해서인지 전공계열에 의해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여가활동을 하는 그룹일수록 대학생활적응 및 대학생활만족도의 점수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활 중 학습 활동 이외의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교우 관계의 확대 및 다양한 경험 증가 등으로 인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증가로 인한 결과임을 추측하게 한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학습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체험 활동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중, 전공 계열별로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 계열에서 연구변수의 점수가 높았던 이러한 결과는, 각 계열별 교과 과정 혹은 학과 운영에서의 장단점에 대한 숙고 및 공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관리 및 지도는 각 전공과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양한 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시시각각 이러한 요구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각 과의 특성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또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서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의사결정역량이 높은 신입생일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며, 대학생활만족도 또한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대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은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 후 이들 간의 상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만족도 증진에 의사결정역량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대학의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재학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역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신입생에게 적합한 의사결정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확대 적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신입생에게 적합한 의사결정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권대봉, 오영재, 박행모, 손준중, 송선희, “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 결정 요인에 대한 탐색적 논의”, 교육학연구, 제40권, 제3호, pp.181-202, 2002.
- [2] 김미라, 황덕순, “국립대학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척도 개발”, 한국소비자학회, 제16권, 제3호, pp.25-42, 2005.
- [3] 김병찬,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 정철열, 최동선, 김진구, “전문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체제 개편 및 운영 방안”, 한국직업교육학회, 제21권, 제1호, pp.71-91, 2002.
- [5] R. S. Lazarus, Personality and adjustment, Prentice-Hall, 1963.
- [6] K. P. Yang, W. M. Su, and C. K. Huang, “The effect of meditation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junior college students: a quasi-experimental study,” J Nurs Res, Vol.17, No.4, pp.261-269, 2009.
- [7] 김은정,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제8권, pp.85-114, 2002.
- [8] R. M. Ryan and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 Psy, Vol.55, No.1, pp.68-78, 2000.
- [9] C. Levesque, A. N. Zuehlke, L. R. Stanek, and R. M. Ryan,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6, No.1, pp.68-84, 2004.

- [10] 최은희, 권대봉, “지역교육청 실행공동체의 전개 양상과 동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제13권, 제3호, pp.1-27, 2007.
- [11] 김완일, 류진혜, 정미영, 김재환,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제12권, pp.125-199, 1994.
- [12] D. C. Miller and J. P. Byrnes, “Adolescents’ decision making in social situation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2, pp.237-256, 2001.
- [13]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일반적 가치와 성격 특성이 청소년과 대학생 및 성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2호, pp.295-313, 2005.
- [14] 홍순복, “공공조직에서 상사신뢰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97-206, 2007.
- [15] 권인각, 박승미, “비판적 성찰 탐구 훈련이 신입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제13권, 제2호, pp.39-50, 2007.
- [16] J. P. Byrnes,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decision-making. Erlbaum, 1998.
- [17] 박미정, 오두남, 함영림, 임승주, 임영미,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역량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아동간호학회지 심사 중, 2012.
- [18] R.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179-189, 1984.
- [19] 손유진, *대학생의 동아리 및 여가참여 유무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0] 한은성,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1] 김지현, *대학 서비스 만족도가 대학생활에서의 삶의 질과 대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2] <http://www.raosoft.com/samplesize.html>

저 자 소 개

박 미 정(Mi-Jeong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 여성건강, 교육방법

함 영 림(Young-Lim Ham)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3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석사)
- 2009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원대학교 응급구조학 조교수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교육

오 두 남(Doo-Nam Oh)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 교육